

지역건설 회복 · 지속 가능 발전 도모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민주 전북자치도당,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협약식 개최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회복과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 지역내 총생산은 64조로 전국 12위 수준이며 건설업이 7%를 차지, 전국 평균(5.8%)에 비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번 협약내용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건설산업이 전북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기 부양, 기반시설 공급,

성장 기반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 특히, 새만금·전북 사회간접자본(SOC)확대 및 제5차 국가철도망, 6차 국도·국지도 건설 예산 확대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과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확대사업과 남원 국립의학전문대 학원, 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분산에너지 확산 협력체계 구축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분과 정기회의 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전북테크비즈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RE100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TP가 주관하고 도내 유관기관 및 기업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비교분석 및 전북형 모델 발굴 의견수렴 △분산에너지 관련 주요 대선공약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연계 신규 과제 발굴 논의가 진행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하여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및 진안 스마트농업 에너지 자립화 사례 등 전북 내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분산에너지 추진 모델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에너지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이 이루어졌다. 신규과제 발굴 안전에 대해서는 총 6개에 대한 과제가 도출 되었고 이중 2~3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전력수요유치형, 신산업활성화형 등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북 맞춤형 모델 도출, RE100 대응 수요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전략 마련,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마을, 탄소·에너지 통합플랫폼 등 신규 실증과제의 체계적 발굴과 기획, 에너지산업 R&D 및 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택 전북TP 원장은 "전북이 RE100 이행과 분산에너지 확산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수"라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전북형 에너지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코피아 네팔센터’ 개소

농촌진흥청,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

현 코이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고빈다 프라시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 트라슈나 프라시드 틸시나 네팔 농업연구청장 등 네팔 정부 및 관계 기관 주요 인사 약 80명이 참석해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29번째로 문을 연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지난 2023년 양국이 센터 설치에 공식 합의한 후,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정식 개소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정미혜 소장 이 초대 소장으로 올해 4월에 공식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파견돼 현지 맞춤형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벼와 감자 분야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네팔 농업연구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코피아(KOPIA)

네팔센터를 중심으로 네팔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농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코피아(KOPIA) 네팔 협력사업을 대표적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성공 사례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가 공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

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현황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사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근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벼 마르는 썩레질 이앙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 열려

부안군 신기술 시범사업 재배지서...노동력 감소·환경 보존 등 효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신기술 시범사업 재배지에서 열린 '벼 마르는 썩레질 이앙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에 참석, 마르는 썩레질과 무논 썩레질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권익현 부안군수, 농업인 등 참석자 100여 명과 함께 마르는 썩레

질 재배지에 '신동진1' 모내기 작업을 지켜본 다음 썩레질 뒤 논물을 비교, 평가하고 마르는 썩레질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르는 썩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썩레질(로터리)과 균평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썩레질과의 차이점은 논에 물을 대 후에는 썩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는 썩레질 방식은 경운 → 마른 로터리 + 균평 → 물대기 → 모내기로 진행된다면, 무논 썩레질은 경운 → 물대기 → 1차 로터리 → 2차 로터리 + 썩레질 → 모내기 방식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노동력을 분산하고 메탄가스과 수질 오염원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첫 흙갈이 작업부터 모내기까지 약 10~12일이 걸리는 기존 썩레질과 비

교해 마르는 썩레질은 약 5~6일에 걸쳐 논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른 봄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작업을 마친 뒤 모내기하면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할 수도 있다. 또한, 무논 썩레질 대비 메탄가스 발생량이 7~9% 낮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으로 부유물질은 98%, 질소는 86%, 인은 88% 적게 발생해 농업 수질오염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쌀 수확량은 평균 10아르(a)당 511kg으로 무논 썩레질(526kg)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25 Challenger 넥스퍼츠 발대식'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9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입사한 농축협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 Challenger 넥스퍼츠 발대식'을 개최했다. 넥스퍼츠(Nexperts = Next+Experts)는 차세대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북농협 고유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 1기를 시작으로 농축협 신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노



하우 공유의 시간을 가졌고 실전마케팅스킬, 생명, 손해 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